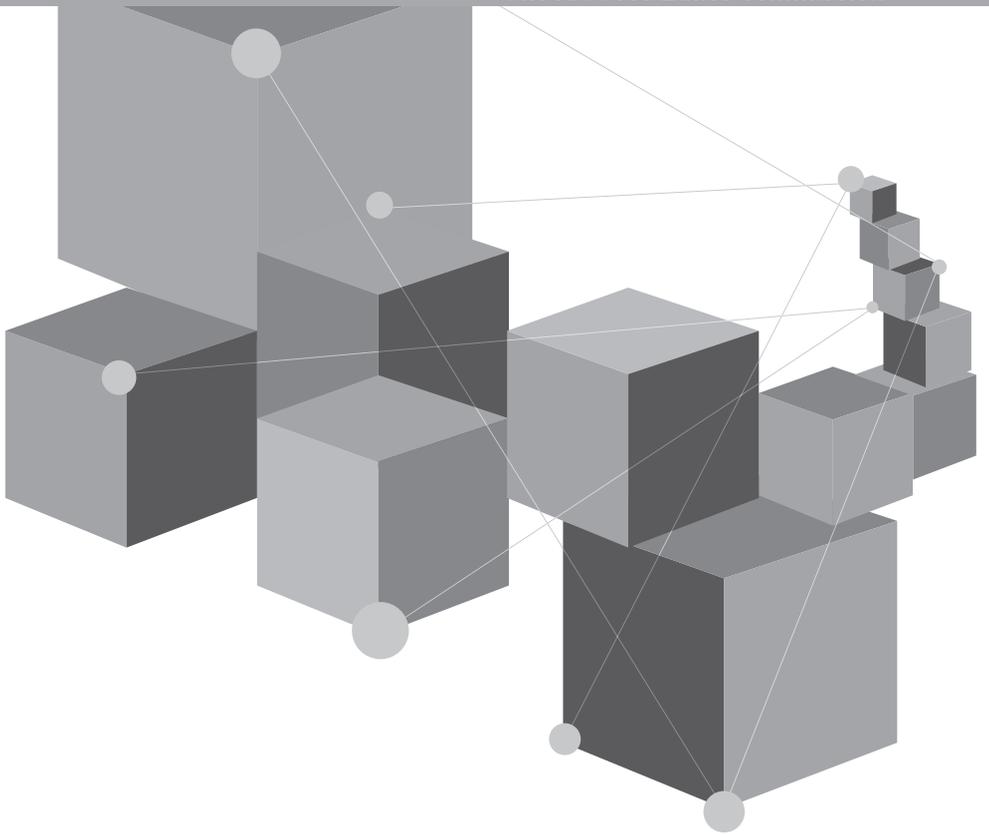


기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2012-1-1 독자불만처리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1년 10월 26일자 18면 「“최고 품질로 지역시장 집중공략”」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매일경제 2011년 10월 26일자 18면 「“최고 품질로 지역시장 집중공략”」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업체 홍보 팸플릿과 유사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타사 제품의 품질을 비하하는 에이스침대 관계자의 발언을 여과없이 실으면서도 타업체의 해명 또는 반박의 내용은 전혀 신지 않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침대 공장은 생산량이나 시설 규모로 보았을 때 쉘리, 시몬스, 쉘타 침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에이스침대가 ‘침대 매트리스 공장 중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대 규모 침대 공장’이라는 내용도 과장이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매일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취이익, 취이익~’

단풍이 한창 붉게 물들고 있는 충북 음성군 삼성농공단지 내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제조라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트리스 스프링 원재료로 쓰이는 경강선을 뽑아 스프링을 만드는 소리가 진동을 한다.

침대·매트리스 공장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70% 이상 생산 시스템 자동화를 갖춰 하루 최대 1000개까지 매트리스를 생산할 수 있다.

39년 매트리스 제조 경력을 지닌 김정균 에이스침대 부사장 겸 침대공학연구원 소장은 “직원 50여 명이 매트리스를 하루 650~700개 정도 생산하고 있다”

며 “제조라인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스침대가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스프링 이중 열처리 기술.

김 부사장은 “쇠가 열을 가하고 두드리면 단단해지듯이 이중 열처리를 거친 스프링은 단단하고 탄성이 좋아지며 기름때도 짝 빠진다”고 설명한다. 김 부사장은 열처리 전후 기름때 유무를 비교하기 위해 흰 장갑을 끼고 직접 매트리스를 닦아 보이기도 했다.

불붙은 매트리스 전쟁, 에이스침대 음성공장 가보니

“최고 품질로 지역시장 집중공략”

‘위이위, 위이위-’

단풍이 한창 붉게 물들고 있는 충북 음성군 삼성농공단지 내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제조라인. 입구에 들어 서자마자 매트리스 스프링 원재료로 쓰이는 경강선을 뽑아 스프링을 만드는 소리가 진동들 한다.

침대-매트리스 공장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70% 이상 생산 시스템을 자동화할 계획 하루 최대 1000개까지 매트리스를 생산할 수 있다.

39년 매트리스 제조 경험을 지닌 김경근 에이스침대 부사장 겸 침대공학연구소장은 “직원 50여 명이 매트리스를 하루 650-700개 정도 생산하고 있다”며 “제조라인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스침대가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스프링 이중 열처리 기술.

김 부사장은 “쇠가 열을 가하고 두드리면 단단해지듯이 이중 열처리를 거친 스프링은 단단하고 탄성이 좋아지며 기름때도 짝 빠진다”고 설명한다. 김 부사장은 열처리 전후 기름때 유무를 비교하기 위해 흰 장갑을 끼고 직접 매트리스를 닦아 보이기도 했다.

제조라인을 돌던 김 부사장이 갑자기 한쪽을 가리키며 ‘출입금지’라고 말한다. 자신과 안성호 사장 등 임원



에이스침대 충북 음성공장 매트리스 제조라인에서 안성호 사장(오른쪽)과 김경근 부사장이 미싱기를 점검하고 있다. <신재국-제이원>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매트리스 스프링판 상부를 내구성과 복원력이 좋은 노란색 스티로폼 같은 물질과 결합시키는 신기술인 하이테크 공법이 이뤄지는 곳이다. 김 부사장은 만들어진 완제품을 타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손가락으로 눌러 보라고 한다.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스프링판과 결합되어 있는 스프링지는 옆저 눌러도 떨어지지 않는 반면 수백만 원 하는 타사 제품들 스프링지는 쉽게 부서지며 스프링이 튀어나왔다.

에이스침대는 침대-매트리스 명가답게 관련 기술 연구에 의한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시장에서 획득한 특허만 2파

위 스프링, 튜브코일 공법 등 4개에 이르며 이 같은 특허는 총 40여 개에 달한다.

약 33만㎡(10만평) 규모인 음성공장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공장이 아닌 4성급 이상 호텔 같은 시설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레지게 한다. 사무실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공장 곳곳에 정원과 비단정어가 노니는 연못들이 있다.

안성호 사장은 “근무 환경이 좋아 직원들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 침대 공장을 갖추고 지난해 매출액 1691억원, 영업이익 361억원을 올리며 탄탄대로를 달

린 에이스침대지만 최근 안성호 사장 실기가 편하지만은 않다. 가구 업계 1위 한샘과 정수기시장 1위인 중진코웨이와 각각 매트리스 제조와 매트리스 렌탈 사업에 진출할 때 문이다.

안 사장은 ‘명업 쪽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항상 경쟁은 있었던 것이 만큼 좋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들한테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진입을 선언한 경쟁사들 모두 자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제조하며 품질관리하는 에이스침대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트리스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물건은 아니다. 관리가 필요없을 만큼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경쟁사 탄탈 사업을 표적화할 수도 있다.

안 사장과 뜻을 같이한 한샘 측은 경쟁사가 최근 출시한 매트리스가 놓여 있고 누군가 자세히 살펴본 듯 했거 있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경쟁사 제품들을 분석하며 시장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안 사장은 “지역 대리점 사장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고 향후 전략을 밝혔다.

음성/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2011년 10월 26일자 18면>

제조라인을 돌던 김 부사장이 갑자기 한쪽을 가리키며 ‘출입금지’라고 말한다. 자신과 안성호 사장 등 임원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매트리스 스프링판 상부를 내구성과 복원력이 좋은 노란색 스티로폼 같은 물질과 결합시키는 신기술인 하이테크 공법이 이뤄지는 곳이다. 김 부사장은 만들어진 완제품을 타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손가락으로 눌러 보라고 한다.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스프링판과 붙어 있는 스티로폼은 힘껏 눌러도 찢어지지 않는 반면 수백만 원 하는 타사 제품들 스티로폼은 쉽게 부서지며 스프링이 튀어나왔다.

에이스침대는 침대·매트리스 명가답게 관련 기술 연구에 의한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시장에서 획득한 특허만 Z파워 스프링, 튜브 코일 공법 등 4개에 이르며 이 같은 특허는 총 40여 개에 달한다.

약 33만㎡(10만평) 규모인 음성공장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공장이 아닌 4성급 이상 호텔 같은 시설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레지게 한다. 사무실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공장 곳곳에 정원과 비단잉어가 노니는 연못들이 있다.

안성호 사장은 “근무 환경이 좋아야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 침대 공장을 갖추고 지난해 매출액 1691억원, 영업이익 361억원을 올리며 탄탄대로를 달리던 에이스침대지만 최근 안성호 사장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다. 가구업계 1위 한샘과 정수기시장 1위인 웅진코웨이와 각각 매트리스 제조와 매트리스 렌탈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안 사장은 “영업 쪽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항상 경쟁은 있었던 것인 만큼 좋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진입을 선언한 경쟁사들 모두 자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제조하며 품질 관리하는 에이스침대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트리스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물건은 아니다. 관리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경쟁사 렌탈 사업을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안 사장과 찾은 전시실 한쪽에는 경쟁사가 최근 출시한 매트리스가 놓여 있고 누군가 자세히 살펴본 듯 찢겨 있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경쟁사 제품들을 분석하며 시장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안 사장은 “지역 대리점 사장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향후 전략을 밝혔다.

2-② 매일경제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 특정 업체 공장 르포 기사의 경우, 해당 공장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시 타 대기업들이 매트리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에이스침대의 위기상황과 향후 대응 부분도 상당부분 할애해 일방적인 홍보 기사라고 하기 힘들다.

■ 취재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했음. 타업체의 해명과 반박 내용을 쓸 경우 공장 르포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매트리스 공방전의 성격의 기사로 변질됨. 하지만 타업체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타업체 사명을 쓰지 않았고 이니셜도 기재하지 않았음.

■ 취재한 공장은 에이스침대 음성공장이며 단일공장으로는 에이스침대와 미국쪽 대형 침대사 문의 결과 음성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가 맞음. 물론 전세계 모든 공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음. 이 때문에 미국내 6위권인 침대 매트리스 브랜드인 킹코일 침대에 문의를 했고 이곳의 국제담당부사장으로부터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시몬스 공장이 미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답변을 받음.

다시 시몬스 코리아에 확인 결과 위스콘신 공장 규모가 225,000 square feet(약 7000평)라는 답변을 받음. 에이스침대 음성공장(약 10만평)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임.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 각 지역별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고 함. 미국 이외 유럽이나 타 지역은 미국 브랜드보다 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음.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안은 매일경제 2011년 10월 26일자 「“최고 품질로 지역시장 집중공략”」 제하의 에이스침대 소개 기사에 대해 독자가 홍보성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매일경제는 의견표명서를 통해, 위 기사는 에이스침대의 위기상황과 향후 대응 부분에도 상당 부분 할애했기 때문에 홍보성 기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시장 진입을 선언한 경쟁사들 모두 자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제조하며 품질 관리하는 에이스침대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에이스침대 관계자의 멘트를 여과 없이 실었을 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제조와 렌탈 사업에 진출한 타업체들의 명칭(한샘, 웅진코웨이)을 직접 언급하며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스프링판과 붙어 있는 스티로폼은 힘껏 눌러도 찢어지지 않는 반면 수백만원하는 타사 제품들의 스티로폼은 쉽게 부서지며 스프링이 튀어나왔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새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에이스침대의 위기상황을 매일경제가 나서서 수습해주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게다가 타사 제품의 품질을 비하하는 내용을 실으면서 타업체의 해명이나 반론은 전혀 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자불만 2012-1-2

朝鮮日報 2012년 2월 2일자 A5면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 처음엔 식은땀, 나중엔 무덤덤」 제하의 기사

1. 불만제기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 본문 내용 중,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 의해 ‘등급외’ 판정을 받고

수입 금지된 게임("맨헌트 2")을 기자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다운 받아 체험해보았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자가 정당한 금액을 내고 구매하지 않고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자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피제기인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朝鮮日報 2012년 2월 2일자〉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 처음엔 식은땀, 나중에 무덤덤
눈 찌르고 머리 자르자 끔찍한 비명과 솟구치는 피 ...
심장 · 호흡도 덩달아 가빠져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점멸하는 음침한 복도. 빨테 안경을 낀 마른 체격의 사나이가 철제(鐵製) 볼펜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간다. 모퉁이를 돌아 멀리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 직원의 뒷모습이 보인다. 사내는 잠긴 문을 여느라 정신이 없는 직원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느닷없이 볼펜을 들어 목 오른쪽을 힘껏 찔렀다. 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사내는 피묻은 볼펜을 다시 움켜쥐고 태연한 표정으로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차례로 공격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직원의 눈에서 피가 분수처럼 치솟았다. 사내가 다시 직원의 복부를 3~4차례 더 찌르자 사내의 환자복과 두 손은 피범벅이 됐다. 더 이상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바닥엔 피가 흥건하다.

기자가 지난달 18일 밤 국내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300원을 내고 내려 받아 체험한 '맨헌트2'(Manhunt2) 게임의 한 장면이다. 어두컴컴한 PC방에서 '첫 살인'을 마친 뒤, 게임을 잠시 멈추고 의자에 기대 헤드폰을 벗자 헤드폰 쿠션 부위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호흡도 가빠다.

맨헌트2는 정신병 범죄자 수용시설에 갇혀 있던 주인공이 근무자와 동료 수감자 등을 살해하고 탈출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범죄자가 살해 대상자의 뒤를 들키지 않고 시간을 끌며 최대한 오래 따라갈수록 더 잔인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잔인한 장면’이 ‘포상(褒賞)’으로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임 속에서 두 시간여 동안 10여명을 살해한 뒤부터는 새롭게 얻게 될 무기와 새로운 살인방법에 대해 호기심이 일었고, 살인을 앞두고는 흥분되기까지 했다.

미국에서 제작된 이 게임은 작년 3월 국내 한 게임업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수입허가를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으로 수입금지됐다. 하지만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검색란에 게임 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게임 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결과물이 화면 가득 쏟아졌다. 두 포털 모두 이용자가 성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잔인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외국게임 홈페이지를 링크까지 해두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서울 마포의 한 PC방. 네 명의 초등학생이 왓지지컬 떠들며 총싸움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코앞의 적과 마주친 민호(가명·초등 5년)가 검지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마구 두드려 총을 난사했다. 총탄 중 한 발이 상대의 머리에 명중하자 ‘퍽’ 소리와 함께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나 민호가 조종하는 군인 역시 몇 발짝 가지 못하고 모퉁이 뒤에 숨어 있던 상대방이 휘두른 군용 칼에 난자당해 쓰러졌다.

이 게임은 국내 개발사가 만든 ‘서든어택’으로, 이용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다. ‘게임 속에서 상대를 죽이는 게 목적’인 게임은 14세 이하 어린이의 접촉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호는 3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이모(22)씨는 “초등생들도 부모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게임 아이디 하나씩은 웬만하면 갖고 있다”며 “초등생이지만 대놓고 포르노만 보지 않으면 (폭력 게임은) 그냥 못 본 체 넘긴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이 아닌, 오프라인 게임(패키지게임·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게임)일 경우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필요조차 없다. 자동차로 무고한 행인을 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내용으로 폭력 게임의 대명사가

된 ‘GTA’ 시리즈, 사람을 살해해 인육(人肉)과 장기(臟器)를 식량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된 ‘폴아웃’ 시리즈 등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지만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무나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검색란에 ‘잔인한 게…’까지만 치면 ‘잔인한 게임 추천’이 자동으로 제시될 정도다. 같은 제목의 게시물만 수십여건이 모니터를 채운다. 1월 15일 ‘잔인한 게임 추천 줌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클릭하자 ‘sks****’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잔인한 게임 추천, 플리즈 제발”이라고 써놓은 게 보였다. 그는 “고문게임 잔인하지도 않음. … 예를 들어 머리를 자른다든가 심장 도려낸다든가 눈알을 뽑든가…”라고 했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박진영 기자 jyp@chosun.com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 ①항(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언론이 폭력성 게임의 유해성을 알리고 부모 등의 성인 명의로 폭력성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통제할 사회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해당 기자의 행위는 사실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취재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 독자불만 2012-1-3

아시아투데이 2012년 1월 13일자 22면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
제하의 콩트

1. 불만제기인은 위 콩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아시아투데이 1월 13일자 22면 피플면에 게재된 ‘손영미의 男과 女’를 보면
소재나 묘사에 있어서 선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임을 고려할 때 유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피제기인 아시아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콩트를 게재하였다.

〈아시아투데이 2012년 1월 13일자〉

손영미의 男과女 62화

우리 시대의 남녀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이별의 변주곡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

제주도로 신년 학회 세미나를 온 기현과 랑은 자유토론 캠프파이어를 뒤로
하고 숲을 내달린다. 랑이 장난치듯 묻힌 검정 숲이 기현의 얼굴 코와 두 볼에
선명하다. 기현이 랑을 잡겠다고 뒤쫓는다.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장난
치며 쫓고 쫓는다. 랑은 기현을 따돌리며 리조트 정원을 휘돌아 솔숲 산책로
까지 내달린다.

한참을 내달리던 랑이 지쳐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
다. 기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랑을 향해 다가온다. 그러나 여전히 랑보다 뒤
쳐진 기현, 그동안 학교와 집 밖에 모르던 기현의 생활 패턴이 결국 랑보다 못
한 체력을 내보이며 헉헉 거린다.

“시시하게 기초 체력도 안 되면서 날 쫓아, 말도 안 돼!”

“허허 헉! ~~~휴, 뭐야!”

“그렇잖아?”

량이 놀리자 기현은 가만히 량의 얼굴을 바라본다.

“보고 싶었어!”

량은 그런 기현을 바라보다가 건너편 벤치로 간다. 량은 가쁜 숨을 몰이쉬며 벤치에 몸을 누인다. 량의 얼굴 위로 우거진 숲 사이,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떠 있다. 량은 이마의 땀방울을 훔쳐내며 숨을 내몰아 쉰다. 어느새 기현이 량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매만진다. 그러다 잠시 량의 얼굴을 바라보다 량의 배위로 올라앉는다. 량이 순간 놀라 움츠러들자 기현은 량의 두 손목을 움켜잡는다.

별을 보던 량의 눈이 어느새 기현의 눈동자에 머문다. 검은 숲속 량과 기현의 눈동자만이 반짝인다. 기현의 손은 거칠 것 없이 량의 몸 곳곳을 찾아든다. 간간히 들려오는 파도소리 뿐, 이제 인적이 드문 오솔길 외진 숲속, 기현과 량뿐이다. 량은 연신 누군가가 볼까봐 불안한 듯 길모퉁이를 훑쳐보면서도 기현의 허리를 움켜잡는다. 이내 두 사람의 입술은 솜사탕을 감아말 듯 서로의 혀와 입술을 훔친다. 감미로운 숨결을 주고받으며 기현과 량은 간간히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반주로 호흡을 내달린다.

두 사람의 감미로운 살결위로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의 재즈 ‘왓 이즈 데어 투 세이(What is there to say)’가 구수한 트럼펫과 감미로운 바리톤 색소폰과 하나 되어 흐른다.

은밀한 육체의 달콤함에 점점 빠져드는 기현, 연희의 품을 벗어나 량의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감아 안으며 내내 설렌다. 량이 결혼한 후 첫 해후다. 량에 대한 그동안의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다시는 그녀를 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량을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기현의 온 몸은 불에 달군 듯 뜨겁다. 량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바쳐낸다. 이내 두 사람은 껴안듯 마주 앉아 또 한 번의 걱정을 맞는다. 가늘게 떨리는 량의 목과 입술이 마치 꽃잎처럼 피었다 지다를 반복한다. 그런 량의 입술을 훔치던 기현의 두 눈은 적에게 먹이를 재빠르게 가로채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눈을 닦았다. 인적을 피해 가파르게 내달리던 두 사람 곁으로 점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인다.

달콤한 육체의 호흡을 가까스로 내리는 두 사람, 멧쩍게 웃는다. 그러다가 랑은 기현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솔숲을 쏜살같이 걸어 리조트로 향한다. 혼자 남은 기현은 그런 랑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기현은 걸으며 아직은 랑의 수줍은 모습에서 가공되지 않는 원석 같고, 다시 새롭게 안은 몸의 신선함과 반짝임으로 설렌다. 또한 그 가공되지 않는 순수성이 때론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워 보인다.

결혼 후 랑은 예전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이다. 또한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열이 엿보인다. 몸의 교감도 훨씬 풍부하고 세련되어 졌다. ‘아!...’ 랑의 가슴살 체온에서 느껴지는 안온함이 좋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 느낄 수 있는 교감이었다.

기현은 조금 전 밀애를 되새기며 입가에 미소를 떠올린다. 솔숲 오솔길을 벗어나자 세찬 바람이 컷불을 훑고 지나간다. 그러나 마음은 푸근해진다. 오늘 밤 랑과 또 한 번의 교감 릴레이를 꿈꾼다. 솔숲을 나와 사람들이 모인 캠프파이어 장에 도착한 기현은 사람들 속에 있는 랑의 모습을 훑쳐본다. 또래의 조교들 속에 있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완숙하고 점잖은 여인의 모습이다.

‘결혼이란 굴레가 랑을 저렇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건지. 여자들의 속성이 그렇게 내숭인지. 아니면 속내를 엿본 자신이 부담스러워 애써 가식을 부리는지. 과연 저 내숭이 신혼의 단꿈 이후 얼마나 갈 것인지’ 기현은 새삼 궁금하다.

“잊지 마, 랑! 남자들은 타지에 나오면 다 동물적인 본능이 발작해. 으스스한 길, 혼자 걷지 마.”

“맞아, 남자들은 아주 불안정한 존재야. 언제든 집을 나오면 암컷을 향해 달려지.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냥 자유의 몸으로 총각의 탈을 쓰고 아주 너를 겁탈하듯 달려들 거야.”

“아휴! 그래, 알아 알았어.”

랑은 친구들의 놀림이 너무 정곡을 찔려 내심 불안하다.

‘혹 친구들에게 기현과 함께 나눈 밀애를 들키지는 않았는지’

애써 태연을 가장하지만 만약 입소문이나 구설로 팬스레 학교에서 눈 밖에 날까 불편하다. 이 모습을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기현이 랑과 눈이 마주치자 잉크를 날린다. 움찔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는 랑은 애써 탄생을 피운다.

영문도 모르고 기현이 다가서자 랑은 그를 외면한 채, 다른 남자 교수 곁으로 다가가 눈웃음을 치며 건배를 권한다. 모두들 신년 담소와 그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들뜬 분위기다. 기현은 그런 랑이 귀엽기도 하고 괜히 장난을 쳐주고 싶어진다. 다시 기현은 랑에게 다가가 건배를 권한다. 그러나 랑은 가볍게 눈인사를 끝으로 다른 남자교수의 팔짱을 끼고 껴안듯 안기어 블루스를 춘다. 점점 기현이 불안해 진다.

‘뭘, 저런 자식과 블루스를 쳐 기분 나쁘게 … . 그렇게 쉬운 여자야, 랑! 아무튼 알 수 없는 여자야!’

사람들은 하나 둘씩 분위기와 술에 취하고 기현도 취했다. 그들의 머리 위로 ‘What is there to say’의 선율이 겨울밤⁸ 정취와 어울려 하나로 흐른다.

여전히 랑은 자신만 외면한 채, 다른 교수들 틈 속에서 흰 이를 드러내며 즐겁고 유쾌하다. 기현도 이에 질세라 어린 조교와 블루스를 추고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장난을 친다. 그러나 랑은 기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숙소로 향하고 랑과 조교들이 주변정리로 분주하다. 그러자 살며시 랑의 곁으로 다가가 귓가에 속삭인다.

“몇 호야?”

얼굴이 붉어진 랑, 기현의 모습이 기가 찬 듯 가만히 바라보다가 주변 조교들의 호출에 얼떨결에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린다.

‘내 참! 별스럽기는…. 그럼, 아까는 뭐였어. 장난?’

결혼 전에는 그토록 노골적으로 들이대던 그녀가 결혼 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게 더 우습다.

띠리링~~! 랑한테 온 휴대폰 문자다.

‘앞으로 아무 곳에서나 들이대지 말아요. 불쾌해요. 전 결혼한 유부녀라고요. 주변 사람들 좀 의식해요. 아까 일은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 갔어요. 없었던 일로 해요. 우리.’

‘흥 없었던 일! 그렇게 앙큼하게 저질러 놓고 없었던 일 ….’

량의 휴대폰 문자를 보던 기현의 눈은 술에 취해 점점 풀려간다. 혼자 투덜대며 건너편 량을 바라본다. 량은 이제 주변 정리를 거의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중이다. 기현은 숙소를 들어가기 전, 량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려 수영장 주변 가로등빛을 향해 걷는다. 량은 그런 기현이 못내 불안하다.

“잠깐 술숯 입구에서 봐.”

기현의 문자를 확인한 량은 애써 외면한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기현이 수영장 물속으로 빠졌다. 갑자기 침병 소리에 놀란 조교들이 아우성이다. 기현이 한겨울 차가운 수영장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외친다.

“이랑, 난 너 없인 오늘 밤 안 되겠어. 제발 나를 살려줘. 이랑 나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

주변 사람들의 웃음 반, 염려 반이 교차되어 아우성이다. 뒤늦게 나타난 남자교수 두 명이 허우적대던 기현을 끌어 올린다. 차가운 수영장에서 구조된 기현은 술에 만취한 채 물에 젖어 턱이 반쯤 떨어진 상태에서 량을 바라본다. 량이 담요를 펼쳐 기현의 젖은 몸을 감싼다. 그러자 기현이 일어서는 량에 손목을 끌어안으며 외친다.

“너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야. 량!”

량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을 모른다. 동료 교수들이 숙소로 가자고 이끌어도 고집을 피우는 기현, 아랑곳없이 량만을 외쳐대는 기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량에게 기현을 맡기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난다.

수영장 주변에 첩피덕 주저앉아 “랑! 이랑!” 을 외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기현의 목소리가 리조트 안 가득히 울려 퍼진다.

기현의 술주정을 지켜보는 량은 죽을 맛이다. 일부러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수작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죽었다는 제자를 애써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슬픔 같기도 하다. 술주정으로 량을 외치다가 혼자 울며 웃다를 반복하던 기현은 이내 어린아이처럼 량의 가슴팍에 기대어 잠은 잔다. 한밤중 술에 취한 기현을 끌어안고 량은 긴 한숨을 내신다.

‘이 밤, 불현듯 다가선 소동 뒤에 고요함과 혼란의 경계에 선 내 마음은 얼마나 아슬아슬한가, 이 밤아! 어서 가다오.’

3. 사회적 윤리와 도덕이라는 잣대로 볼 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애정행위를 하는 것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고 금기시되는 행위이다.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가족법 제도로도 불륜은 허용되지 않는 애정관계이다.

따라서 사회 공공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불륜’은 가능한 한 소재로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작품에 쓰인 소재 또는 묘사가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단순한 ‘치정’이나 ‘욕정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회적 제약이라는 경계선상에서 갈등하는 남녀의 심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작품이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 2012-1-4 독자불만처리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2년 2월 2일자 A5면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 처음엔 식은땀, 나중에 무덤덤」 제하의 기사(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朝鮮日報 2012년 2월 2일자 A5면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 처음엔 식은땀, 나중에 무덤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위 기사 취지에 공익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지나치게 자극적입니다. 게임의 체험담을 너무 세밀하게 보도한 점, “고문게임 잔인하지도 않음. … 예를 들어 머리를 자른다든가 심장 도려낸다든가 눈알을 뽑든가…”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표현한 점 등이 그러합니다.

특히,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림’은 지나친 유혈, 머리 절단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TV프로그램에서도 이 정도의 장면은 방영 하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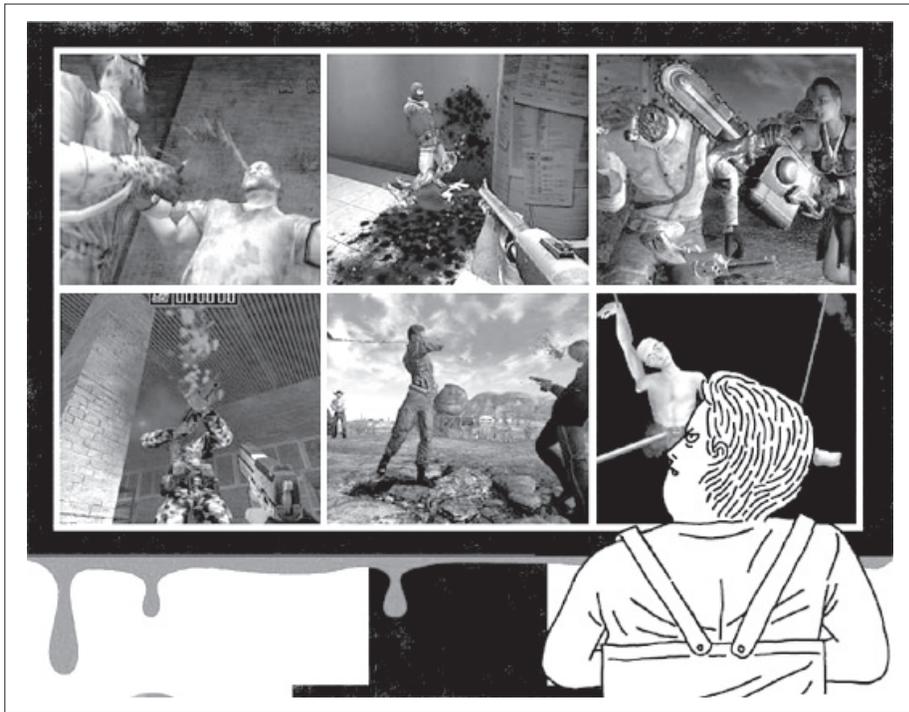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 처음엔 식은땀, 나중엔 무덤덤
눈 찌르고 머리 자르자 끔찍한 비명과 솟구치는 피 …
심장 · 호흡도 멎달아 가빠져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점멸하는 음침한 복도. 뿔테 안경을 낀 마른 체격의 사나이가 철제(鐵製) 볼펜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간다. 모퉁이를 돌아 멀리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 직원의 뒷모습이 보인다. 사내는 잠긴 문을 여느라 정신이 없는 직원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느닷없이 볼펜을 들어 목 오른쪽을 힘껏 찔렀다. 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사내는 피물은 볼펜을 다시 움켜쥐고 태연한 표정으로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차례로 공격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직원의 눈에서 피가 분수처럼 치솟았다. 사내가 다시 직원의 복부를 3~4차례 더 찌르자 사내의 환자복과 두 손은 피범벅이 됐다. 더 이상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바닥엔 피가 흥건하다.

기자가 지난달 18일 밤 국내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300원을 내고 내려 받아 체험한 ‘맨헌트2’(Manhunt2) 게임의 한 장면이다. 어두컴컴한 PC방에서

‘첫 살인’을 마친 뒤, 게임을 잠시 멈추고 의자에 기대 헤드폰을 벗자 헤드폰 쿠션 부위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호흡도 가빴다.



〈朝鮮日報 2012년 2월 2일자〉

맨헌트2는 정신병 범죄자 수용시설에 갇혀 있던 주인공이 근무자와 동료 수감자 등을 살해하고 탈출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범죄자가 살해 대상자의 뒤를 들키지 않고 시간을 끌며 최대한 오래 따라갈수록 더 잔인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잔인한 장면’이 ‘포상(褒賞)’으로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임 속에서 두 시간여 동안 10여명을 살해한 뒤부터는 새롭게 얻게 될 무기와 새로운 살인방법에 대해 호기심이 일었고, 살인을 앞두고는 흥분되기까지 했다.

미국에서 제작된 이 게임은 작년 3월 국내 한 게임업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수입허가를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으로 수입금지됐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검색란에 게임 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게임 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결과물이 화면 가득 쏟아졌다. 두 포털 모두 이용자가 성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잔인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외국게임 홈페이지를 링크까지 해두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서울 마포의 한 PC방. 네 명의 초등학생이 왓지지컬 떠들며 총싸움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코앞의 적과 마주친 민호(가명·초등 5년)가 검지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마구 두드려 총을 난사했다. 총탄 중 한 발이 상대의 머리에 명중하자 ‘퍽’ 소리와 함께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나 민호가 조종하는 군인 역시 몇 발짝 가지 못하고 모퉁이 뒤에 숨어 있던 상대방이 휘두른 군용 칼에 난자당해 쓰러졌다.

이 게임은 국내 개발사가 만든 ‘서든어택’으로, 이용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다. ‘게임 속에서 상대를 죽이는 게 목적’인 게임은 14세 이하 어린이의 접속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호는 3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이모(22)씨는 “초등생들도 부모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게임 아이디 하나씩은 웬만하면 갖고 있다”며 “초등생이지만 대놓고 포르노만 보지 않으면 (폭력 게임은) 그냥 못 본 체 넘긴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이 아닌, 오프라인 게임(패키지게임·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게임)일 경우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필요조차 없다. 자동차로 무고한 행인을 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내용으로 폭력 게임의 대명사가 된 ‘GTA’ 시리즈, 사람을 살해해 인육(人肉)과 장기(臟器)를 식량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된 ‘폴아웃’ 시리즈 등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지만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무나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검색란에 ‘잔인한 게…’까지만 치면 ‘잔인한 게임 추천’이 자동으로 제시될 정도다. 같은 제목의 게시물만 수십여건이 모니터를 채운다. 1월 15일 ‘잔인한 게임 추천 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클릭하자 ‘sks****’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잔인한 게임 추천, 플리즈 제발”이라고 써놓은 게 보였다.

그는 “고문게임 잔인하지도 않음. … 예를 들어 머리를 자른다든가 심장 도려낸다든가 눈알을 뽑든가…”라고 했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박진영 기자 jyp@chosun.com

2-② 朝鮮日報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朝鮮日報 2월 2일자 A5면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 처음엔 식은 땀, 나중에 무덤덤> 제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이 기사의 도입부에서 게임 ‘맨헌트2’의 잔인한 살인 장면을 묘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폭력 게임이 학부모 등 기성세대가 막연히 생각하는 ‘폭력물’의 수준을 훨씬 초월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제기한 독자께서는 폭력 게임의 체험담을 너무 세밀하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신문기사의 특성상 이 정도의 묘사는 기사 작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서 폭력 게임의 심각한 실상을 전달하기 어려우며, 폭력적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폭력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폭력 게임은 게이머가 게임 속 등장인물에게 스스로를 투영, 본인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폭력 또는 살인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으로 화면 속 폭력을 ‘수용’하는 것에 불과한 영화·드라마·만화 등과는 비할 바 없는 해악을 미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기사를 통해 게임의 폭력성을 잘 모르고 있는 부모들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녀들을 폭력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성도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자체가 폭력을 지나치게 전달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해, 폭력적인 내용을 글을 통해서만 묘사했을 뿐, 사진과 그래픽에서는 사진 크기를 최소화하고, 흥기가 몸에 박히는 순간 등이 담

긴 사진은 배제하는 등 언론 윤리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언론이 폭력 게임의 유해성을 알리거나 부모 등의 성인 명의로 폭력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통제할 사회적 장치가 없는 현실 등을 지적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朝鮮日報가 게임 속 잔인한 살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고문게임 잔인하지도 않음. … 예를 들어 머리를 자른다든가 심장 도려낸다든가 눈알을 뽑든가…”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은 폭력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일간신문에 지나친 유혈, 머리 절단 등의 장면이 포함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품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에게 오히려 폭력 게임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사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④항(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5 독자불만처리 전남매일 발행인 신 용 호

〈주문〉

전남매일 4월 11일자 7면 「장휘국 교육감 공약 이행 ‘저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전남매일 4월 11일자 7면 「장회국 교육감 공약 이행 ‘저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평가단이 내놓은 실천 공약 분석 자료를 보면 74개 실천 공약 중 매우 우수 11개, 우수 19개, 보통 30개, 다소 미흡 11개, 미흡 3개입니다.

우수 이상의 평가(매우 우수+우수)가 다소미흡과 미흡을 합한 수치(14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목에서부터 공약이행 ‘저조’라고 표현하고 본문도 의도적으로 교육감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전남매일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전남매일 2012년 2월 2일자〉

장회국 교육감 공약 이행 ‘저조’

74개 사업 중 우수 30개 미흡 14개 평가

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용역비만 낭비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장회국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평가한 결과 일부 주요 사업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연구 용역비를 비롯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장회국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추진한 3대 핵심공약 및 4대 주요 추진과제를 7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평가단은 74개 실천공약 중 매우 우수 11개, 우수 19개, 보통 30개, 다소 미흡 11개, 미흡 3개로 평가했다.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는 취업지원센터 설립, 특수교육 보조원 관리 전환 및 채용 확대, 학생인권 조례제정 등을 꼽았다.

반면 급식지원센터 설립, 방학 중 학교 급식, 유치원 모델 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급식지원 센터 건립의 경우 법적으로 지자체가 설립·운영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건립연구 용역을 발주해 월세 2,500만원만 낭비했다.

또한 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추진성과에 비해 홍보 부족과 과급효과 등이 미비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단도 현 교육감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한쪽 의견에만 치우쳤다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실무부서 관계자와 교육발전 TF팀 등 14명으로 구성됐고 외부 평가단도 일부가 특정단체 출신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들로 채웠다.

한 대학 교수는 “교육청 입맛에 맞는 소수 인사들의 의견만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냐”며 “광주교육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 교수, 언론 등 각 분야에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는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광주교육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2-② 전남매일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 2012년 4월 11일자 7면 「장회국 교육감 공약 이행 ‘저조’」 제하 기사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해당 신문 및 기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요청해 왔다.

위 기사가 “평가단도 현 교육감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한쪽 의견에만 치우쳤다는 의문이 일고 있다”라고 기술하며 평가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며, 우수 이상의 평가가 다소미흡과 미흡을 합한 수치보다 많은데도 제목에서부터 공약이행 ‘저조’ 라고 표현하고 공약 이행이 미흡한 사업을 부각하는 데만 치중한 것은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의 감시 기능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위 기사가 공약 이행이 잘된 사업보다는 공약 실천이 미흡한 사업을 다루는 데에 비중을 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취지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부평가단이 실무부서 관계자와 교육발전 TF팀 등으로 구성된 점, 외부평가단도 일부가 특정 단체 출신 교사로 채워진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평가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는 언론이 가진 ‘비판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평가단 구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근거로 「장회국 교육감 공약 이행 ‘저조’」라는 단정적인 제목을 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자칫 독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편집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오히려 부제목과 본문에서는 각각 「74개 사업 중 우수 30개·미흡 14개 평가」, “평가단은 74개 실천공약 중 매우 우수 11개, 우수 19개, 보통 30개, 다소 미흡 11개, 미흡 3개로 평가했다”라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위 제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6 독자불만처리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2년 5월 8일자 E1면 「이기면 맥주, 지면 소주 마셔」, 5월 12일자 28면 「술집 옆 편의점에선 왜 인형을 팔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 2012년 5월 8일자 E1면 「이기면 맥주, 지면 소주 마셔」, 5월 12일자 28면 「술집 옆 편의점에선 왜 인형을 팔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중앙일보를 정기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위 기사들은 보광훼미리마트를 간접적으로 홍보해주기 위해 작성됐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또한, 5월 8일자 E1면 「이기면 맥주, 지면 소주 마셔」 제하 기사의 통계 수치는 매우 한정된 표본집단(보광훼미리마트 매출량)을 근거로 한 것임에도 그것이 마치 일반적 현상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중앙일보 2012년 5월 8일자〉

이기면 맥주, 지면 소주 마셔

프로야구 홈팀 성적 따라 지역상권 들썩

지난달 24일 대구에서는 삼성과 롯데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다. 8회 말까지 삼성이 2대0으로 앞서 갔다. 삼성은 9회 초 ‘끝판 대장’으로 불리는 마무리 투수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홈런을 포함해 4안타를 두들겨 맞으며 6실점했고, 결국 경기는 삼성의 역전패로 끝났다. 대구에서는 이날 경기 시작 전 맥주와 소주 판매율이 6대4쯤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이 패하자 소주 판매가 급증해 결국 맥주와 소주의 판매율이 3대7로 역전됐다. 대구에 사는 삼성 팬 김홍민(54)씨는 “우리 팀이 패하면 기분이 나빠 쓴 소주가 좋고, 이기면 기분도 좋아 부드러운 맥주를 자주 마신다”고 말했다.

최근 프로야구가 날로 인기를 더해가면서 홈팀의 승패에 따라 지역 상권도 덩달아 춤추고 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주류나 치킨·모자 같은 야구용품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홈팀이 이긴 날은 맥주가 많이 팔리고, 진 날은 소주 판매량이 급격히 올라간다. 보광훼미리마트가 프로야구가 열리는 지역의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7일 훼미리마트에 따르면 인천·대구·광주·부산 등에서는 야구경기가 열리면 없을 때보다 맥주는 28%, 소주는 20%가 더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팀이 승리하면 야구경기가 없는 날보다 맥주는 47%, 지면 소주가 62% 더 나갔다.

프로야구가 열리는 날엔 치킨도 잘 팔린다. 훼미리마트에서 판매하는 조각 치킨의 경우 프로야구가 개막한 4월 둘째 주 판매량이 첫째 주보다 12% 늘었다. 또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개막 전보다 27%가 상승했다. 프로야구 여성팬의 위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편의점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인증한 야구모자나 응원도구 같은 야구용품을 구입한 남녀 비율은 58대 42 정도 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여성의 구매 비율이 49%로 높아졌다. 훼미리마트의 유선웅 MD기획팀장은 “프로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열기가 고조될수록 각 지역의 야구 관련 상품 소비도 늘어난다”며 “KBO와 제휴한 정품 모자뿐 아니라 아이스크림·삼각김밥 등 관람할 때 필요한 상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2년 5월 12일자〉

[Money&] 편의점 2만 개 시대

술집 옆 편의점에선 왜 인형을 팔까

◆ 대구 수성구의 웨미리마트 두산소망점. 대구 젊은이들이 모이는 맛집·술집 거리에 위치한 이 편의점 한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인형들이 빼곡히 놓인 별도의 매대가 자리 잡고 있다. 어린애 주먹만 한 1만원대 작은 인형부터 초등학교 키만 한 대형 곰돌이(17만원)까지 48종이 진열됐다. 술집 옆 편의점에서 인형을 파는 이유는 뭘까. 바로 적당히 술에 취해 ‘취중진담’ 고백의 선물용으로 인형을 찾는 손님들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한 달 150만원어치씩 인형이 팔려나간다. 점주 이승국(40)씨는 “연인들이 함께 와 고르거나 회식 후 귀가하는 직장인이 자녀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 미혼 남성 신성현(34)씨에게 편의점은 ‘백반집’이다. 혼자 사는 처지다 보니 아침이면 출근 준비에 바빠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그런데 얼마 전 역삼동 회사 앞 편의점에 들렀다가 밥솥에서 직접 밥과 국을 퍼주는 것을 봤다. 800원짜리 밥 한 공기 500원짜리 국 한 그릇, 반찬까지 해도 3100원이면 따뜻한 백반을 먹을 수 있었다. 신씨는 아침뿐 아니라 점심도 이곳에서 자주 해결하고 있다. 이곳은 웨미리마트가 지난해 12월에 따로 분류한 ‘즉석밥 특화점’이다.

편의점 2만 개 시대, 방문객의 마음을 읽는 ‘관심법’ 점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편의점은 2만650개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대한민국 총인구는 4977만9000명이다. 국민 2410명당 편의점이 한 개씩 들어서 있는 셈이다. 1989년 서울 잠실 올림픽선수촌의 세븐일레븐 1호점이 국내 최초 편의점으로 문을 연 지 22년 만의 성장이다.

시장 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편의점은 더 이상 ‘담배·삼각김밥

가게'가 아닌 '과학'이 됐다. 지난해 말 웨미리마트가 20년간 축적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지별로 고객과 구매 패턴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웨미리마트는 이에 따라 전국의 점포를 '주택가·오피스·원룸촌·대학가·학원가·공장지대·유흥가·도로변' 등 8대 입지로 분류하고 입지별 특성에 따른 특화 상품을 강화했다. 올 초에는 전국 점주들을 초청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박람회도 치렀다.

이에 따르면 입지에 따라 상품 배열은 물론이고 제품 종류나 비율도 달라진다. 최근 무더위로 매출이 급증한 얼음 음료의 경우 초·중·고 학생이 많은 가족 주택 입지에는 레모네이드·과일주스 같은 비(非)카페인 음료 비중을 늘리고, 커피도 향긋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헤이즐넛 커피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했다. 20~30대 직장 여성 고객층이 두터워 트렌드에 민감한 오피스 주위에서는 모히토·망고에이드 같은 신제품 음료와 여성이 선호하는 아메리카노를 모둠 진열해 놓는다. 같은 커피라도 유흥가 주변 점포의 제품 구성은 이와 다르다. 음주 후 달콤한 맛을 찾게 되는 속성에 맞춰 캐러멜마키아토 같은 달콤한 커피류를 중심으로 판매한다.

주 고객의 주머니 사정도 편의점의 주요 변수다. 용돈을 쪼개 쓰는 대학생이 주 고객인 대학가 점포는 8대 입지 중 '가격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웨미리마트는 전국 대학교 안이나 인근 168개 점포에서 지난 3월 한 달간 신학기 할인행사를 했다. 학생들이 즐겨 찾는 빵·컵라면·문구류 등 10개 품목에 대해 물건을 덤으로 주는 +1 행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이들 제품의 판매율이 지난해보다 282% 상승했다. 특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도시락·삼각김밥의 신장률은 400%가 넘었다.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K-POP 스타'의 인기도 편의점에 영향을 미쳤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길거리 음악감상족이 늘어 이어폰 수요도 급증한 것이다. 이에 웨미리마트는 서울 삼성동의 오피스거나 서울 노량진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어폰을 특화 판매하기 시작했다. 오피스 입지 점포에서는 다른 제품을 사러 들렀다가 이어폰을 보고 생각나서 사 가는 충동구매가 많았고, 학원가에서는 학기 중 시험기간의 판매 신장률이 높았다.

서울과학기술대 안에 입점한 웨미리마트에서는 학기 중 월 120만원어치씩 아이폰이 팔려나갔다.

군부대도 차별성이 뚜렷한 입지다. 웨미리마트가 군부대 밀집지인 강원도 5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군인, 면회객, 인근 주민 순으로 편의점을 찾았으며, 초콜릿 등 달콤한 과자류를 주로 사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고객층인 군인의 소비 특성도 독특했다. 군인 월급이 많지 않은데도 다른 입지에 비해 가격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아 할인 행사를 해도 판매가 늘지 않았다. 대신 2+1, 3+1 등 추가 증정을 하면 매출이 급증했다. 군인에게는 '가격보다 양'이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웨미리마트는 지난달 1일부터 전국 218개 군부대 점포에서 라면·초콜릿·디저트류 등 8종 상품에 대해 2+1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점포에서는 주중과 주말의 매출 구성도 달랐다. 면회객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주말에는 면회 온 이들을 위한 종이컵·렌즈세정액·칫솔·여성화장품 등의 진열을 보강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이렇게 군부대 인근 점포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 매출은 17%, 특화 상품 매출은 41% 신장했다.

1인 가구가 4인 가구의 비중을 넘어서며 편의점의 소규격 생필품 수요도 늘고 있다. 웨미리마트는 자취·하숙 학생이나 독신 직장인이 많은 '원룸촌' 입지에 최근 '다이소' 매대를 별도로 들였다. 휴지통·슬리퍼·빨래건조대 같은 생활용품은 기본이고 랜선·케이블선 등 철물점에서나 구할 수 있었던 물건까지 들여놓았다. 밥 없이 반찬만 따로 포장한 '반찬도시락'도 원룸촌 점포 인기 상품이다.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는 '1인 가정'들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햇반 등 즉석밥은 박스채 대량 구입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룸촌 입지인 역삼점의 경우 반찬도시락 판매를 시작한 후 하루 평균 50개의 도시락이 팔려나가고, 단골 고객이 늘어 전체 매출도 20% 늘었다. 독신자들의 외로운 금요일 밤도 놓칠 수 없는 공략 포인트다. 웨미리마트는 원룸촌 인근 점포에서 매주 금요일 와인을 최대 60% 할인하는 '와인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치즈 등 어울리는 안주류를 와인 곁에 진열했다. 그러자 와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400% 늘어났다.

'드라이브족' '레저족' 역시 편의점의 분석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었다. 웨미

리마트는 교외 국도변이나 휴게소 인근 점포 300여 곳에 차량용품 특화 매대를 설치해 청소용품, 방향제 등 70여 종의 차량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딱히 구매했던 상품이 없더라도 졸음을 깨기 위해 도로변 편의점을 찾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 고객이다. 최근 가족 단위 꽃구경 등 나들이객이 늘자 5월 1~10일 매출이 지난해 대비 21% 늘었다. 졸음을 쫓아준다고 해서 최근 젊은 층에 유행하는 에너지음료 판매도 입지별 차이가 뚜렷했다. 올해 에너지음료 판매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나 해외 유학파가 많은 용산·강남 지역 점포에서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2-② 중앙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5월 8일자 E1면 「이기면 맥주, 지면 소주 마셔」 제하 기사가 인용한 통계 수치는 보광훼미리마트에서 제공한 것인데, 보광훼미리마트의 전국 점포수는 4,805개(2010년 3월 현재)로 전국 주류도소매판매업체수(129,570 개소)의 4%정도에 불과하다. 즉, 보광훼미리마트 주류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훼미리마트의 통계수치가 마치 전국 단위 현상인 것처럼 과장해 「이기면 맥주, 지면 소주 마셔 ... 프로야구 홈팀 성적 따라 지역상권 들썩」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 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5월 12일자 28면 「술집 옆 편의점에서 왜 인형을 팔까」 제하 기사는 독자들에게 '편의점 입지별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으나, 기사 본문에서는 훼미리마트의 입지별 특화상품전략과 각종 할인 행사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종 업계의 경쟁업체들을 배제한 채 특정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

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동일 업체에 대해 반복하여 지면을 할애하는 보도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7 독자불만처리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東亞日報 2012년 7월 24일자 A10면 「현직 대학교수가 “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내라” 김일성 찬양하면 A+ … 비판 학생은 B학점」, 한겨레 7월 24일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과제 낸 교수 기소」, 朝鮮日報 7월 24일자 A11면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쓰게 한 교수 검찰 수사, “학생들에 ‘장군님’ 부르게 하고 김일성 비판 땀 퇴실시켰다」, 서울신문 7월 25일자 31면 사설 「김일성 찬양하면 A+ 학점 준 울산대 교수」 제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東亞日報 2012년 7월 24일자 A10면 「현직 대학교수가 “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내라” 김일성 찬양하면 A+ … 비판 학생은 B학점」 기사 외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들은 수강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해 국가보안법(이적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의 모대학 교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피의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에서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기사들은 울산대 국문과 A 교수(55)〈東亞日報〉, 울산대 이아무개(55) 교수〈한겨레〉,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55) 교수〈朝鮮日報〉,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 교수〈서울신문〉 등으로 표기하여 형식상으로는 익명표기를 취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국문과가 있는 4년제 대학은 울산대가 유일해 A교수, 이모 교수라고 표기했다 하더라도 울산대 국문과로 적시하고 나이까지 밝힌 것은 실명보도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마이뉴스 7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는 “김일성을 장군님으로 부르도록 한 적도 없으며, 김일성이나 북한에 비판적인 학생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였음을 볼 때 위 기사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東亞日報 등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東亞日報 2012년 7월 24일자〉

현직 대학교수가 “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내라”

檢.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현직 대학교수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교수는 김 주석을 찬양한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높은 학점을 준 반면 비판하면 낮은 학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3일 울산대 국문과 A 교수(55)를 국가보안법(이적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빨치산 전력자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등과 교류했다. 또 2003년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과 참고자료 등 200여 건을 모두 내려받아 탐독하면서 주체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2004년 폐쇄됐다.

A 교수는 2005~2010년 ‘국문학사’ ‘고전시가론’ 등의 수강생들(380여 명)에게 총 8권에 달하는 ‘세기와 더불어’를 읽은 뒤 감상문을 제출토록 했다. A 교수는 ‘(김일성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독재자의 이미지는 없다’는 요지로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최고인 A+학점을 줬다. 반면 ‘김일성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파에 대해 피의 숙청을 자행했다’는 등으로 비판한 학생에게는 B학점을 줬다.

A 교수는 또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일성 장군님’으로 부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주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학생을 강의실에서 내보낸 적도 있다고 당시 수강생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이어 같은 대학 교수 2명에게도 ‘세기와 더불어’를 e메일로 발송하는 등 포섭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 교수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는 없으며 해병대 출신이다.

검찰은 김 주석에 대해 긍정적인 감상문을 제출한 당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명 가운데는 한 명은 현재 국가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백산맥’을 비롯한 국내 여러 문학작품을 추천한 뒤 학생이 책을 선택해 감상문을 써 제출하도록 했다. 그 가운데 ‘세기와 더불어’도 포함돼 있었다”며 “김일성 찬양 여부에 따라 학점을 차별해서 주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A 교수로부터 검찰 발표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할 말이 없다”며 끊어버렸다.

〈한겨레 2012년 7월 24일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과제 낸 교수 기소
교수쪽 “여러 책 중 선택하게 했을뿐”

울산지검 공안부는 23일 대학생들에게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등을 읽고 감상문을 내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아무개(55) 울산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는 2005~2010년 국문학사와 고전시가론 등의 강의를 맡으면서 380여명의 학생들에게 김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이 운영하는 누리집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등 북한 원전 200여건을 구해 교수연구실에 보관하며 읽고, 동료 교수 2명에게도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일수록 좋은 학점을 주는 등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을 상대로 중복행위를 했다”며 “학생들은 이 교수가 수업시간에 김일성을 ‘장군님’으로 호칭하도록 했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책은 김 주석의 회고록 외에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남한의 문학작품들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며 “학생들이 직접 책을 선택해 읽도록 했고, 김일성 찬양 여부와 학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朝鮮日報 2012년 7월 24일자〉

“학생들에 ‘장군님’ 부르게 하고 김일성 비판 땀 퇴실시켰다”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쓰게 한 교수 검찰 수사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하고 김일성을 찬양·미화한 학생에게 A학점 이상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중복 활동을 해 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등)로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55) 교수를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5년간 이 교수 과목을 수강한 대다수의 학생은 이 교수의 평소 반체제적인 성향을 알고서, 김일성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일성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감상문을 쓴 일부 학생은 A 또는 A+ 학점을 받았고,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학생은 B학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업시간에 ‘김일성’을 ‘장군님’으로 호칭하게 했고, 심지어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경우 교실에서 퇴실시킨 적도 있다는 학생들의 진술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 200여건을 교수실에 보관·탐독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 등에 깊이 빠져든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대학 교수 두명에게도 접근, ‘세기와 더불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포섭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학교 관계자를 통해 “태백산맥 등 국내 문학작품 감상문 과제를 내면서 ‘세기와 더불어’는 그중 하나였고, 교육 목적으로 교재로 활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김학찬 기자

〈서울신문 2012년 7월 25일자〉

[사설] 김일성을 찬양하면 A+ 학점 준 울산대 교수

현직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 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공과목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내도록 해 김일성을 찬양한 학생에게는 A+ 학점 등 높은 점수를 주고 비판한 학생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교수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 200여건을 내려받아 탐독하면서 주체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설명한다. 검찰의 발표대로 이 교수가 학점을 미끼로 학생 상대 중복행위를 했다면 그 반교육적인 행태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교수는 '태백산백' 등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선택해 읽은 뒤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했으며 "학점과는 무관한 감상문이었고 강제성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양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서적을 읽게 한 것은 학문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주장의 순수성을 오롯이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일성 장군님'으로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듯 이념적으로 경도된 자세를 드러내고 강요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저버리는 것 아닌가. "학문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돼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 또한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1960~70년대 남북 체제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대학 강단에서 아직도 김일성 찬양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철 지난 이념은 이제 법적인 제재를 떠나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2-② 東亞日報 등 해당사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죄 보도에서 언론은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언론기관이 범죄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두문자 또는 이니셜로 표기하면 오직 한정된 주변 인사만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위 제기인의 주장처럼 소도시 울산에 국문과가 있는 대학이 1개 밖에 없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익명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알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익명보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유지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다. 어떠한 경우에 공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의 내용 및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특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익이 피의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르면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 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수사당국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취재 기자는 그 정보가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신속성을 중시하는 언론의 속성상 보

도 전에 이를 점검하기란 여러 여건 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東亞日報 등은 보도 전후로 정보에 대한 사전점검과 향후 발생할 예측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살피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피의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익이 우선한다고 보고 기사를 다룬 측면이 있고, 익명 표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 2012-1-8 독자불만처리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2년 8월 14일자 C1~C7면 「웰빙라이프/무더위에 지친 당신! 몸도 마음도 쿨하게」 제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중앙일보 2012년 8월 14일자 C1~C7면 「웰빙라이프/무더위에 지친 당신! 몸도 마음도 쿨하게」 제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중앙일보 2012년 8월 14일자 웰빙라이프 섹션은 무더위에 지친 독자에게 마치 새로운 정보라도 주는 듯이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막상 내용을 보면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상품 소개도 아님에도 특정 정수기를 과다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즉석식품, 이온음료, 막걸리, 아이스크림 등은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중앙일보는 품목별로 단 하나만을 선정, 소개하였습니다.

신선한 재료·맛·가격... '흔한 인스턴트 제품은 잇따라'

최근 '흔한' 인스턴트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기존 인스턴트 제품과 차별화된 맛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맛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진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스턴트 제품이 맛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흔한' 인스턴트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사진=이른바 '흔한' 인스턴트 제품들)

이른바 '흔한' 인스턴트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기존 인스턴트 제품과 차별화된 맛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맛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알론(Allon) 다이어트 제품 광고 이미지

달콤 깔끔, 밀집새 어은-양조장 박길의 재현

최근 출시된 '밀집새 어은'은 양조장 박길의 재현을 목표로 개발된 제품이다.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追求한 이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양조장 박길의 특유의 맛과 향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활용했다. 특히, 밀집새 어은의 특유의 맛과 향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활용했다.

알론으로 배우는 다이어트

알론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다. 알론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알론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다. 알론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원두의 깊은 맛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강자로



원두의 깊은 맛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강자로. 최근 출시된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의 깊은 맛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제품은 원두의 깊은 맛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의 깊은 맛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품 초콜릿과 아프리카 원두 커피의 만남

명품 초콜릿과 아프리카 원두 커피의 만남.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명품 초콜릿과 아프리카 원두 커피의 만남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녹차와 석 달 남게 먹인 돼지고기 - 부드럽고 담백, 짭짤맛



녹차와 석 달 남게 먹인 돼지고기 - 부드럽고 담백, 짭짤맛.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녹차와 석 달 남게 먹인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담백, 짭짤한 맛을 선사한다.

폭염이 반가워요 '국민 아이스크림' 상한가

폭염이 반가워요 '국민 아이스크림' 상한가.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반가워요.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반가워요. 폭염이 반가워요 '국민 아이스크림' 상한가.

세 도리치 등 일체 개·기하학을 일깨워

세 도리치 등 일체 개·기하학을 일깨워.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세 도리치 등 일체 개·기하학을 일깨워.

새콤 달콤 과일맛 치즈 차가죽 데서요

새콤 달콤 과일맛 치즈 차가죽 데서요.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새콤 달콤 과일맛 치즈 차가죽 데서요.

대한 병뚜개 크리올을 열었다니 - 키를 부르네

대한 병뚜개 크리올을 열었다니 - 키를 부르네.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이 특별한 조합은 맛과 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대한 병뚜개 크리올을 열었다니 - 키를 부르네.

2-② 중앙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섹션은 「무더위에 지친 당신! 몸도 마음도 쿨하게」라는 제목 아래, 마치 건강한 여름과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듯한 방식으로 정수기, 즉석식품, 아이스크림, 커피 등 특정상품과 특정업체를 장점 위주로 상세하게 홍보하고 해당 상품 광고도 함께 게재하였다.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없이 전달하는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9 독자불만처리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주문〉

아시아경제 2012년 8월 31일자 27면 「질풍시대 334회」 제하 소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아시아경제 2012년 8월 31일자 27면 「질풍시대 334회」 제하 소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소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포르노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런 소설을 어떻게 신문에 연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볼까봐 얼른 치워

버렸습니다.

이런 소설은 하루빨리 연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에 대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소설을 게재하였다.

〈아시아경제 2012년 8월 31일자〉

질풍시대(疾風時代) 334회

13장. 대야망 (25)

그렇다. 정수현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있다. 지근거리에서 정수현 만큼 이영준을 관찰하기 적합한 위치의 인간은 없다. 그 정수현이 자신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같이 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갈라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영준은 시트를 젖히고는 정수현의 알몸을 내려다보았다.

“아유.”

하면서 정수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알몸은 놔두었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영준은 환한 불빛에 비친 정수현의 알몸을 내려다보았다. 윤기가 흐르는 피부, 젖가슴은 봉긋했고 검붉은 젖꼭지는 이미 곤두서 있다. 음광한 배꼽 주위의 아랫배.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던 이영준이 숨을 들이켰다. 검은 숲에 쌓인 골짜기가 드러난 것이다. 두 다리를 조금 벌리고 있어서 골짜기 안의 선홍빛 벽도 드러났다. 이영준은 정수현의 몸 위로 오르면서 묻는다.

“참기 힘들다. 어때?”

“나두 그래.”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정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가락 사이로 반짝이는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냥 해줘.”

“다음에 빨아줄게.”

이영준이 위로 오르자 정수현이 손을 내렸다. 붉게 상기된 얼굴이 바로 아래쪽에서 올려다본다. 눈동자의 초점이 잡히지 않아서 먼 곳을 보는 것 같다. 그때 정수현이 두 손으로 이영준의 남성을 감싸 쥐더니 자신의 동굴 끝에 붙였다.

“해줘. 어서.”

정수현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다. 이영준은 먼저 정수현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웬지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경의다. 예의라고 해도 맞을 것 같다. 그리고는 다음순간 천천히 남성을 진입시켰다. 기다리고 있던 정수현이 이영준의 남성을 맞는다.

“아아.”

정수현이 입을 딱 벌리더니 신음 같은 탄성을 커다랗게 뱉는다. 이영준은 어금니를 물었다. 정수현의 동굴은 이미 넉넉하게 젖어 있었던 것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지만 좁고 탄력이 강하다.

“아유. 아피.”

하면서 정수현이 손을 빼어 이영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잡아끄는 시늉을 한다. 말과는 다른 행동이다.

“아유. 자기야.”

완전히 몸이 합체 되었을 때 정수현이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제는 두 다리로 이영준의 하반신을 힘껏 감아 안는다. 이영준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으으음.”

그때 정수현이 허리를 흔들면서 소리쳤다.

“날 죽여줘. 자기야.”

이영준은 상반신을 세웠다. 그때 정수현도 이영준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다리를 풀어 내린다. 다시 방안에 정수현의 비명이 마음껏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끝없이 이어져 가는 것 같은 탄성과 신음이다. 방안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비린 습기로 가득 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둘의 몸은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땀으로 젖었고 정수현은 몇 번째 절정에 올랐다가 내려왔는지도 잊었다. 이윽고 이영준이 폭발했을 때 정수현도 마지막으로 함께 터졌다. 그리고 둘은 한 덩이가 된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강렬하고 장렬하기까지 한 정사다. 그래서 둘은 모든 것을 다 털어 내놓은 것처럼 머릿속이 텅 빈 채로 영켜져 있다. 다시 떼어지지 않을 것 같다.

2-② 아시아경제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한 기업체 팀장과 여직원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음란한 대사와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 6 (성행위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0 독자불만처리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주문〉

아시아경제 2012년 10월 4일자 8면 「매출 1000억원 코스닥업체 대표 불륜 현장 ‘발각」 제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아시아경제 2012년 10월 4일자 8면 「매출 1000억원 코스

다업체 대표 불륜현장 ‘발각’」 제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아시아경제는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사 최모 대표와 스튜어디스 등 3명이 간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연매출 1000억원, 코스닥 상장 기업, 임플란트 생산 판매회사, 최모 대표’라는 조건으로 검색하면 회사대표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시아경제 2012년 10월 4일자〉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사 최모 대표와 스튜어디스 등 3명이 간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며 해외 법인 20여개를 거느린 유망기업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 최모(52)씨, 대학교수 부인 B(39·스튜어디스)씨, 사업가 C(48)씨가 모두 배우자가 있는데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호텔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신고는 B씨의 남편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아내와 남성들이 호텔에서 간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호텔방을 찾아가 침대와 샤워실 등에서 머리카락을 수집했다.

또한 경찰의 노크에 문을 연 이들은 모두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 최씨는 출동한 경찰에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소개했고 “3명이 함께 술을 마셨을 뿐 관계를 맺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함께 있던 B씨는 간통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출장이 잦았던 A씨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 B씨를 처음 알게 돼 지난해부터 연인처럼 지내왔다”며 “사건 당일 최씨는 후배인 C씨를 불러 같은 호텔방에서 차례로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B씨 남편의 고소에 따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2-② 아시아경제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와 대학교수 부인, 사업가가 간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사 최모 대표와 스튜어디스 등 3명이 간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며 해외 법인 20여개를 거느린 유망기업이다”라고 보도했다.

비록 위 기사가 입건된 기업 대표에 대해 ‘성’만 표기하고 회사명도 영문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며 해외 법인 20여개를 거느린 연매출 1000억원의 코스닥 상장사 중 최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아시아경제가 아직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피고소인의 신원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한 행위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1 독자불만처리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2년 8월 29일자 9면 「은둔형 외톨이」 범죄 부추기는 사이트 성행」 제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문화일보 2012년 8월 29일자 9면 「은둔형 외톨이」 범죄 부추기는 사이트 성행」 제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저는 ‘은둔형 외톨이의 공간(your-space.co.kr)’이라는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사이트 개설을 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일보 기자가 제 동의 없이 제 사이트의 내용을 기재하고, 정식 인터뷰 동의도 받지 않고 문자로 마치 자기가 상담 받을 것 같이 문의하고 관련 내용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제 사이트에 공지 사항에 1회 상담에 2만 원의 상담료를 받고 주 1회씩 3개월간 상담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썼습니다. 지금은 공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반 상담 업체의 기본 상담료가 최소 5만원이고, 회당 3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담 업체는 방문 상담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상담소에 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 상담을 하며, 회당 2만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둔형 외톨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한 시점이며, 정신과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은둔형 외톨이 상담을 하기 위해 필요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기사에서 나온 심리상담사 준비 중은 맞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상담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자격 미달자 처럼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드릴 것은, 기사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이트들이 많다고 나왔는데, 현재는 저밖에 없습니다. 각 포털에 '은둔형 외톨이'만 검색하면 상업적인 사이트가 저를 포함해서 1~2군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사실을 쓴 것이 아니고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많은 왜곡을 했습니다.

5개월 전 제가 사이트를 만들 때는 관심도 없었던 기자나 작가들이 갑자기 연락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제 사이트가 문제 있는 사이트로 소개 하였습니다. 거기다 범죄를 부추기는 사이트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자신이 기자라고 밝히지 않고, 의뢰인처럼 문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의사도 심리 상담사도 아니기를 바라며 유도 심문을 했습니다.

기자 : 상담받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저 : 네 방문당 2만원이고 초회 방문비는 무료입니다 저녁쯤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회사 생활을 해서요 자세한 말씀은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기자 : 혹시 누구한테 상담 받는 건가요?

저 : 상담은 제가 합니다

기자 : 아 네 제가 정신과도 다녀봤는데 혹시 심리상담사이신가요? 의사는 싫어서요

저 : 네... 그러셨군요... 의사는 아니고요 심리상담사는 준비 중입니다.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함정 취재를 진행 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취한 뒤에는 제 전화도 안 받더군요. 이따위 취재 행태가 인정이 된다면, 이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을지를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문화일보 2012년 8월 29일자〉

‘은둔형 외톨이’ 범죄 부추기는 사이트 성행

최근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면서 현실과 담 쌓고 인터넷으로만 소통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상당수 관련 사이트가 자살, 성매매 등을 유혹하는 글로 도배돼 범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운영되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는 수천여 개에 이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400여 개의 관련 카페가 개설돼 있고 네이버에도 300여 개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각 카페나 커뮤니티마다 적게는 4, 5명에서 많게는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소속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그날 할 일이나 은둔 생활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약국이나 영화관 위치 등을 묻고 답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이트 게시판은 성매매나 도박, 동반 자살 등 범죄를 유혹하는 글들로 도배돼 있다. 모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이트 게시판의 경우 ‘cszomb 66055’라는 회원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가루, 3일간의 기간 필요, 70% 확률’이라는 글을 올리자 ‘약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coke4679’라는 회원이 ‘잠시나마 우울함에서 벗어나 즐기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은둔형 외톨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이트도 적지 않다. 한 상담 사이트의 경우 1회 상담에 2만 원의 상담료를 받고 주 1회씩 3개월간 상담을 진행한다고 소개했지만 운영자는 현직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가 아닌 심리상담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반인 남성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 교류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인터넷상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궁기(정신의학과) 연세대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는 인터넷상의 범죄 유혹에 더 잘 빠질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 자살

등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② 문화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 왔다.

본보 기사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평소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던 남성이 전 직장동료들에게 칼을 휘둘러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직후 게재됐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수천여 개가 개설돼 있고 이 중 상당수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나 도박, 동반 자살 등 범죄를 유혹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에게 돈을 받고 상담해주는 사이트들 가운데 일부가 의사나 심리치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사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자살은 물론 묻지마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이 같은 대상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가 상담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행위인 것처럼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무자격자의 심리 상담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정신치료 전문가들도 하나 같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무자격자의 심리 치료가 얼마나 위험한 지 지적했습니다. 남궁기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는 알콜 중독이나 정신분열,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잘못된 상담을 받다 자칫 치료 기회나 시기를 놓칠 경우 범죄자가 되거나 자살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의사나 심리치료사가 아닌 경우 취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은둔형 외톨이 상담사이트 운영자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격증 여부에 대한 명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법의료 현장이나 마

약거래 현장과 같은 범죄 현장이나 유해 업소 등을 취재할 경우 신분을 숨기고 취재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불법 행위를 유도하거나 지시한 것도 아니고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상담사이트 운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단지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함정취재라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문화일보 기자가 본인이 기자 신분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동의 없이 기사화 한 것에 대해서 해당 취재원이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 ①항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이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만제기인에 대하여는 단지 ‘일반인 남성’ 이라고 칭하였을 뿐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상담 사이트의 경우 1회 상담에 2만 원의 상담료를 받고 주 1회씩 3개월간 상담을 진행한다고 소개했지만 운영자는 현직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가 아닌 심리상담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반인 남성으로 드러났다”는 기사 내용도 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 2012-1-12 독자불만처리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2년 10월 18일자 W1~W8면 「아웃도어 스타일」 제하의 섹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위 섹션은 마치 겨울등산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듯한 방식으로 여러 브랜드의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광고 전단지나 다름없는 표 현들로 가득합니다.

더구나, 해당 상품들의 광고까지 같이 실려있는 것을 보면 광고 수주를 위 해 작성해 준 기사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2. 이에 앞서 피제기인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 2012-1-13 독자불만처리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문〉

스포츠서울 2012년 11월 15일자 15면 「블라디보스톡, 아시아의 끝에서 유럽을 만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불만제기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전면에 걸쳐 홍보성으로 편집된 이 기사는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 광고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끝부분에는 상품요금, 출발시간, 그리고 자세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피제기인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스포츠서울 2012년 11월 15일자〉

블라디보스톡, 아시아의 끝에서 유럽을 만나다

제정 러시아시대 과거와 현재 공존

동서양 문화 섞인 독특한 아름다움

한국인들에게 이국적인 풍광과 문화로 인기가 높은 유럽은 여행을 떠나기엔 다소 멀다. 비용도 만만하지않고 일정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유럽 중에서도 드넓은 러시아 대륙은 다행히 한반도 북쪽까지 이어져 있다. 특히 ‘동방의 진주’라고 불리는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로부터 약 9500km 떨어져 있지만 화려한 제정러시아 시대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공업, 교통, 문화의 중심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출발역이며, 종착역이기도 하다. 또한 한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동서양 문화가 섞인 독특한 아름다움까지 간직한 곳인 까닭에 가장 가깝게 유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블라디보스톡이 16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면서 좀 더 가까워졌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취항기념으로 ‘동양의 진주’의 매력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단독 특가로 준비했다.

이우석기자 demory@sportsseoul.com

우스리스크에서 발해 옛 성터 - 광복군 회의실 등 역사 탐방을 ...

● ‘동방의 진주’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2박3일(아시아나항공 이용)= 첫날 인천에서 오후 1시 50분 출발해 2시간30분 동안 비행한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아르바트거리’로 향한다. 이곳은 해안가와 가까운 시내이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아 유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곳이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아무르만’ 해변에는 야외 카페와 상점들이 즐비해 젊은이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해양공원 산책과 러시아 전통 공연 관람 후,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다음날 아침은 블라디보스톡역에서 우스리스크 구간까지 약 2시간 가까이 달린다. 우스리스크에 도착하면 이상설 의사 기념비, 발해 옛 성터, 고려인 역사 센터, 최재형 선생 생가, 옛 광복군 정부 회의실 등 이국에서 느끼는 우리 역사 문화를 탐방한다.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와 영화 ‘태풍’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중심가 ‘혁명광장’으로 향한다. 중앙광장으로도 불리는 이 광장은 각종 집회와 국가행사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면서 금요일 정기시장이 열려 현지인과 여행객이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다. 장동건, 이정재 주연의 영화 ‘태풍’에서 수많은 비둘기 떼가 지난 뒤 장동건이 나타나는 장면으로도 유명하다. 혁명광장을 지나

‘곰백화점’으로 이동한다. 1906년 지어진 전통있는 러시아 국영 백화점으로 붉은광장을 사이에 두고 레닌 묘와 마주하고 100여년 역사를 갖고 있는 러시아 최대 고급 백화점이다. 우리나라 백화점과 달리 천장이 높고 유리로 덮여 있어 햇빛이 그대로 투사된다. 백화점에서는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구경만으로도 즐겁다.

다음 일정은 제2차 세계대전시 첫 출정해 승리를 거둔 잠수함을 박물관으로 활용 중인 ‘C-56 잠수함 박물관’과 블라디보스톡 여행객들의 단골코스인 ‘영원의 불꽃’, 개선문 등을 둘러본다.

마지막으로는 시내 전망이 한눈에 펼쳐지는 블라디보스톡 전망대(191m). 금각만, 아무르만, 주변에 펼쳐진 섬들과 도시의 파노라마가 눈을 즐겁게 한다.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후, 러시아 전통꼬치 요리 사슬릭과 함께하는 만찬을 마친 후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

출발 전 연해주 독립 운동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신한촌으로 가서 우리 근대사의 현장을 견학하고 극동대학교, 러시아 상모 정교회 등을 방문한 후,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일정이다.

● 상품정보= 가격 49만9000원. 28일, 30일 12월 5일, 7일(단 4회) 출발. 왕복항공료, 전 일정 관광.차량, 식사, 호텔(2인1실), 한국어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포함. 기사.가이드팁(30달러), 유류할증료, 비자비용(12만원) 불포함.

‘시베리아 횡단열차’ 출발 종착역 13시간 달려 하바롭스크까지…

●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2박 3일 (아시아나항공)= 이 상품은 첫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7시 출발한다. 블라디보스톡에선 아르바트거리, 신한촌 기념비, 극동대학교, 러시아 상모 정교회 등 시내 투어로 마무리한다. 다음날은 호텔 조식 후, 지난 9월 APEC을 개최했던 ‘투스키섬’을 둘러보고 혁명광장으로 향한다. 곰백화점과 C-56 잠수함 박물관, 영원의 불꽃, 니콜라이 3세 개선문을 보고 블라디보스톡 전망대에서 마무리하는

일정. 이번 상품의 하이라이트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이다. 1912년 완공된 블라디보스톡역에서 모스크바까지 총연장 약 9500km의 시베리아횡단열차(TSR)을 타고 약 13시간 가까이 달려 하바롭스크 역에 도착한다. 명소 레닌광장의 얼음조각을 구경하고 광장 근처 디나모 공원, 하바롭스크 시청사, 감소물 광장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기념 명예광장과 향토 박물관 등 희귀한 자료를 모두 감상하고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재래 시장을 방문한 후 하바롭스크 공항을 통해 인천으로 돌아온다.

●상품정보= 가격 69만9000원. 29일 12월 1일, 3일, 6일, 8일(단 5회) 출발. 왕복항공료, 전 일정 관광·차량, 식사, 호텔(2인1실). 한국어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포함. 기사·가이드팁(30달러), 유류할증료, 비자비용(12만원) 불포함. 예약문의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해외여행 대표전화(02)2084-7744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안은 스포츠서울 2012년 11월 15일자 ‘블라디보스톡, 아시아의 끝에서 유럽을 만나다’ 제하의 여행지 기사에 대해 독자가 홍보성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스포츠서울은 해당 여행지의 미비점이나 여행자가 경계·유념해야 할 정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여행 상품의 코스와 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하고 기사 뒷부분에 여행사 이름, 전화번호, 여행상품정보, 이용 가격까지 게재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위 기사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